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가 공했는데 무슨 업이 붙습니까

매사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다 놓으세요
모든 걸 내탓으로 돌려야 업보 녹아져요

☞ 15면에서 계속

맡기고 마음나는 대로 행하면서 열심히 관하세요.

습과 아상 녹이고 싶습니다

문 전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주인공에 믿고, 놓고 그렇게 하루 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또는 찰나에 저의 습관, 남에게 의지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의 의견만이 최고인 듯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떠드는 아집의 버릇이 있습니다.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순간 지혜도 없으면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내 세우는 버릇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행하고 나서 뒤에는 나는 왜?… 행하지 못했나… 가슴 치면서, 괴로와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큰스님가르침에… "해버릴 말을 하지 말고, 입에 자갈을 물려라…" "내세우지 말라…" 하심에 제가 너무나 행함이 없어서 순간순간 그러한 저의 습관과 버릇 에 이끌려 가는 저의 거짓된 자아를 완전히 녹일수 있는지요…

"사량으로 무엇을 얻으려 말고
주인공자리에 놓고 관하여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세요"

아직 주인공에다 믿고 맡긴다 할지라도.... 크나큰 큰스님의 가르침을 행하기 부족한 저를 위해서 법을 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 이거 보세요. 우리들의 몸 자체가 고정됨이 없이 공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는 것은, 거기에 과거로부터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괴로움이 벌어지니까 거기에다 다시 맡겨 놔야, 입력을 시켜야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맡겨 놓고 거기서 하게끔 맨들어야죠. 그렇게 항상 나오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그게 관하는 거니깐요.

지금 우리들은 극치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리가 터지지 않고 자꾸 관습에 얽매이게 되고, 하여튼 내가 살아야 하고 먹어야 살고 하는 착이 붙어서 영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다 떼어 갖더래도 착을 두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공해서 너는 없다. 그냥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주인한테 맡겨라.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없는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내가.... 무의식중에 '내가 벌어야 살지 또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하고 '내가 뭐 어쩌구하면서 나, 나, 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반면에 업이 붙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이 업이 붙습니까? 내가 공했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하고, 찰나에 벗어나게도 되고 곤경에 빠지게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공부하다보면 저절로 습과 버릇이 녹을 겁니다. 괴로워 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관하는 노력을 하세요.

큰스님께 계받고 싶어요

문 어릴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는 불교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자라 오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지고 대학을 들어오면서 저 자신의 집착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배척하였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저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 보게 되고, 다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불경책을 사서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저 자신의 마음속에 불심을 키우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 큰스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로서 큰스님께 계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만약 받을수 있다면 그 인연으로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없애고, 저 자신의 불심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전 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불손한 편지를 한통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리석었고 불손했던것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의 배움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없이 깊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 물론 받을 수 있죠.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은, 먼저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생활속에서 마음을 잘 쓴다면 생사에 관한 건을 다 쥐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오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를 지켜야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계를 받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계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계를 지키려고 할 때 진정으로 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궁금합니다

문 저는 불자나 교인도 아닌 아무 종교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인가 선원의 가족중 한 분을 알게 되었고, 스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접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부터 스님의 일대기가 담긴 책을 빌려 보기도 했었구요. 유년기의 환경이 저와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어릴적 고민거리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의문 같았지만.. 어머니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보면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가 정말 궁금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플레이아데스라는 별에 머언 우리의 조상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황당한 눈으로 저를 바라 보지만, 게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시키려고도 않습니다. 나의 존재를 알고 싶습니다.

답 존재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먼저 자기의 근본, 뿌리인 본성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마음을 낼수가 없고, 마음을 낼 수가 없다면 육신이 움죽거리지 못합니다.

누가 있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겁니까? 바로 참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고 싶다면 사량으로 흘려버리지 말고 주인공 자리에 모조리 다 놔 버리세요. 그런 대의정을 몰록 놓고 공한 도리를 알았을 때 발없는 발로 걷고 손아닌 손으로 집어 먹고 눈아닌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식으로 의정을 내서는 천날 백날해야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매사를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믿고 들어갈 때에 비로소 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야 참 의정이 나오는 겁니다.

무한한 에너지 얻고 싶은데…

문 어떤 책에 보면 업장을 완전히 녹여 영이 순수해지면 무한한 능력의 에너지와 연결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본성자리의 무한한 에너지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데도 어리석고 욕심내고 집착하는 무명에 덮혀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광대무변한 에너지의 맛을 보기 바랍니다.

나와 남이 하나인 까닭

문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안녕하시나는 말도 묻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문뜩 나 아닌 것은 모두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행동하기가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쭙니다. 모두를 나와 같이만 보라 하는 것도 그렇구요. 그런데 전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남이 어떻게 보면 어떤가, 주인공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 가를 지켜보라는 답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와 남은 따로라고 들리기도 하구요...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나와 남은 엄연히 따로 있으나 서로 함께 돌아간다고 생각되기도 하구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나와 남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니 그 사람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와 남은 따로라고 하니 생활하기가 편했습니다. 이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일테고... 또 이렇게 묻는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일테니 대답을 듣던 안 듣던 그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일테지요.

답 요즈음 청소년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잘 못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는 데도 50%의 물질계만 알고 50% 정신계를 빼버리니까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부부지간이든지, 자식과 부모지간이든지 간에 모두가 내 탓으로 돌려야 될텐데 남의 탓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아휴!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자식이 태어났는지, 저런 자식을 뒀는지..." 하고, 부부지간에도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싸울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가보면은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있고 배는 배대로 놓여 있습니다. 모든 걸 생략하고 그걸로 비유하는 겁니다. 배는 배끼리 놓여있어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사람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모여 있듯이 일체가 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차원 따라서 만나기 때문에 우연히도 없습니다. 똑같은 차원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거를 녹일려면 대처해서 없앨려면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만이 업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의 탓으로 돌렸다 하면은 업보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바로 유전이 되고, 그것이 인과가 되고, 그것이 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저질러 놓은 것이니 모든 걸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고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만 알고 말로만 달달달달 외우고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 됐다'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해도 내가 실천 한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다보면 나와 남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도 둘인 도리를 알게 될 겁니다.

더구나 나와 남이 둘이라고 생각하니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다시 만납시다.

담아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문 이 공부는 재미있고 신통방통하네요. 되는 것도 재미요, 안 되는 것은 알고 보니 더 재미있는 그 자비였습니다. 안 되는 것이 더 큰 사랑, 즉 근본의 마음뿌리를 세세생생 완전히 고쳐서 다시금 미혹한 길로 가지 않게 하려는 완전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세세생생히 그 어느 미물에게라도 말 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라도 빈틈없이 완전히 그 깨끗 아닌 깨끗한 길로 이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자신이 어느 것 하나라도 오면 다 담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나이기에 마음내지만 조금만 방심했다면 연방 되돌아오니 너무 많고해서 언제까지 마음을 내야할지 자신에게 답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 아니, 잘 나가시다 왜 옆으로 빠집니까?

그래 무엇이 되겠다고 하니까 안되질 않습니까?

내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부는 놓는 공부요 맡기는 공부요 그런 가운데 지켜보는 공부요 그래서 내가 죽어 나를 보는 공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 다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죽고 또 죽고 거듭거듭 죽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터득하고 더불어 죽어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겠다고 해서 되는 도리이기 이전에 죽어야 보는 도리지요.

헌쇠 잡쇠 무쇠 찌꺼기… 다 닥치는대로 용광로에 쓸어 넣으세요. '넣다보면…' 이지 '나올거다' 도 아닙니다.

스님이 남녀 구분해 속상해요

문 동국대 불교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큰스님 법문 중에는 불법에는 남녀노소 승속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끔 학교에 다니는 스님들이 비구 비구니를 구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겉껍데기 몸뚱이로야 남녀가 있고 잘난사람 못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에야 어디 남녀 구별이 있고 잘나고 못나고 구분이 있겠습니까.

불법공부엔 성별도 없고 학력도 연령도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자격증도 따로 없구요.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게 불법 아닙니까? 평발 평손이지요. 그러니 속상해 할것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때마다 말로해서 될 것 같으면 말로 일러주고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면 속으로 한생각 좋게돌려 지혜로와 질 수 있는 것도 주인공 몫이다 하고 마음을 내주세요.

또 그렇게 높다 낮다를 따져 보았자 더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얼마나 우습나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볼 때면 '아하, 저분이 지금 내게 하심하라고 가르치는구나, 고마운 일이다' 하고 돌려놓고 가세요.

탐진치 삼독심 없애려면…

문 나도 모르는 내마음 깊은 곳의 욕심과 어리석음, 진심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뿌리뽑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엊그제 녹음테이프에 뭘 입력해두었는데 오늘은 그걸 지우고 새것을 입력하고 싶다면 어쩌시렵니까.

입력된 위에 되입력을 하면 되겠지요. 과거에 먹었던 마음이 오늘 이 순간에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거기엔 온갖 것이 다 있지요. 좋아하는거, 싫어하는거, 욕심 분노 어리석은 생각 슬픈생각…,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말입니다.

그걸 다 뿌리뽑자면 나오는 족족 되입력해야 합니다. 그 길밖엔 없습니다. 그동안 여기 질의 응답난에 비슷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되입력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겝니다. 참고하세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문 옳지 못한 인연으로 인해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이 그것으로 인한 과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인연을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다지도 돌아서만 가게되는 것인지, 제 속의 주인공이 하는 일임에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답 전쟁을 하는데 전진하는 것만 법이고 후퇴하는것은 법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되는 것도 법이요 안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나 되어야 한다' 는 생각까지도 놓고 맡기면 그것조차도 이러니 저러니 할게 없지요. 놓고 맡기는데는 뭔가 바라는 게 붙질 않습니까. 붙는다면 놓았다고해도 고작 또다른 욕심일 뿐이겠지요.

"남의 탓하면
업보 쌓여서
유전이 되고
인과가 돼서
고가 따르죠"

감기에 몸과 마음이 아파요

문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파옵니다.

한때는 주변주변에 아픔을 보고 온마음으로 슬퍼하고, 늦게나마 큰스님의 가르침을 만나 큰 기쁨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수행이 되어야 그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 한몸과도 함께되지 못한 제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송함과 야속함과 못난생각 속에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한말씀 이끌어 주십시오.

답 조바심 낼게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경험을 했다는데…, 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른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부는 그 어떤것, 어떤 상태가 되고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나를 죽이는 공부요 비우고 버리는 공부입니다. 그러기에 무조건하고 안팎으로 닥치는 모든 경계를 놓고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리석다는 둥 못났다는 둥 하는 생각까지도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공부이어야 하겠지요.

나쁜 습관 끊고 싶어요

문 여러번 말씀 여쭈고도 제 손에 남는 것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도 과거의 좋지않은 습관을 계속하고 있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는 한약으로 제 몸을 고치려고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절의 공양주나 일꾼으로라도 들어가야겠습니까?

답 무얼 얻고 무얼 남기려고 하십니까? 비우고 또 비우고, 버리고 또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놓질 않으면서 놓아지질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딱하십니다.

원숭이란 놈이 병속에 든 먹이를 움켜쥐고선 손이 빠지질 않아 그만 잡혀 죽었다는 셈으로 주먹에 쥔걸 놓으면 손이 쑥 빠져서 목숨을 건질건데 놓질 않으니 손이 빠져 나오겠습니까? 알아서 잘 참작하세요.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